

여야 광주로 ... 힘 받는 5·18 특별법 처리

민주 지도부 전일빌딩서 최고위 당선인 전원 5·18 묘지 참배 5·18, 세월호 관련 단체 면담 통합당 주호영·유승민 폼페 사과... "법안 처리 협조"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형석·양향자 국회의원 당선인 등 여야 정치인들이 화환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당선인 전원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인 18일 광주를 찾는 등 여야 각 정당이 앞다퉀 광주를 방문한다. 특히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과거 5·18 외곽에 대해) 5·18 희생자와 유가족, 상심하셨던 모든 국민 여러분께 매우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히는 등 여야의 5·18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법안 처리 등도 기대되고 있다.

다. 간담회 사회는 박주민 의원이 맡는다. 오후 5·18민주묘지 참배 후에는 5·18 관련 단체와 면담할 계획이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대표도 광주를 찾는다. 앞서 지난 16일 주 대표는 "당 일각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하고 모욕하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있어 왔고, 아불어 가던 상처를 덧나게 했던 일들도 또렷이 기억한다"며 "개인의 일탈이 당 전체의 생각인 양 확대·재생산돼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일으키는 일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5·18을 기리는 국민 보통의 시선과 마음가짐에 눈높이를 맞추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유족회', '5·18 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법적 단체화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을 처리에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주 원내대표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시절인 지난해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등의 '5·18 망언'을 '숨뱀방이 징계'하는 데 그쳐 관련 단체 등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유승민 통합당 의원도 이날 오전 유의동 의원, 김용 당선인과 광주 북구 운정동 국

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지난해 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외곽 비난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며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진심을 담아 사죄하고 21대 국회를 시작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광주를 찾아 "여야 정치권 모두가 대립과 증오의 정치를 멈추고, 단절과 부정이 아닌 계승과 발전의 역사를 써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당 김경화 공동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각각 18일 광주를 찾아 5·18 기념식에 참석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0대 마지막 국회 유종의 미 거둔다

20일 본회의... 여야, 코로나·n번방 후속법 등 처리 합의

여야가 오는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처리 법안 협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과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은 17일 "원내수석끼리 계속 접촉하며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코로나 19 관련 법안과 n번방 방지 후속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코로나19 관련 법안은 무난한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이나 교직원 관리를 강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출입국 과정의 검역을 강화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이 해당 법안이다. 예술인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힌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저소득층

구직을 촉진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법안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n번방 방지 후속법안 중에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 성착취물 제작·배포에 대한 처벌 범위를 넓히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의 처리가 유력하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세무사법 등도 여야가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20일 본회의를 마치면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법안 처리의 마지막 걸림돌 법사위를 누가 가져갈지가 최우선 관심사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열린민주당과 통합 목소리

필요성 vs 회의론 분분... 8월 전대 후 논의 전망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선 최근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17일 "당내에서 컨센서스(동의)가 형성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열린민주당에서 정식 제안이 있어야 검토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등 각종 입법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조가 이뤄지다 보면 이런 통합론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177석인 민주당과 3석인 열린민주당이 통합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안건을 지정할 수 있는 '180석'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민주

당으로서는 통합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당 일각에선 통합하지 않아도 입법 공조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통합의 효용성이 있느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거대 여당이 돼버린 민주당보다 말과 행동의 부담감이 덜한 열린민주당이 독자 정당으로 남아 여권의 '저격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낫다는 의견 역시 있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도 하나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우상호 의원은 지난 1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 당 지도부가 들어서면 그때 검토할 일"이라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친노 원로' 이기명, 이낙연 지지선언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회장... 이낙연, 오늘 광주서 당선인 오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84)씨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에 대한 공개지지 선언했다. 원조 친노(친노무현)와 친문(친문재인)을 동시에 상징하는 인사로 꼽히는 이 전 회장은 이 위원장이 국무총리 시절 각종 조연을 아끼지 않으며 두터운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이 본격 대권 행보에 나서면 당내 주류인 친노·친문 진영의 지지세를 확보하는데 이 전 회장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회장과 이 위원장의 인연은 2002년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

명 방송작가 출신인 이 전 회장은 1989년부터 2003년까지 노 전 대통령의 후원회를 이끌었고, 이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와 당선인 시절 대변인이었다. 그때 맺은 인연을 시작으로 이 위원장은 이 전 회장을 '선생님'으로 칭하며 종종 조연을 구했다고 한다. 한편 이 위원장은 오는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을 계기로 광주에서 민주당 호남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상견례를 겸한 오찬을 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과 가까운 이개호 의원은 모임에 주도했으며 광주·전남 당선인 18명 중 14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전두환, 12·12 직후 미국에 도움 요청

5·18 민주화 기록관, 美 기밀문서 43건 공개... 美, 쿠데타 규정

전두환이 12·12 군사반란 직후 주한미 국대사와 면담에서 군부 내 반대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미 대사는 본국에 보낸 보고에서 전두환과 신군부를 1908년 터키에서 군사혁명을 일으킨 젊은 장교들을 의미하는 'Young Turks' (젊은 투르크)로 지칭하며 이들이 미국의 도움을 원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당시 상황은 미국 국무부가 한국 외교부에 제공한 43건(약 140쪽 분량)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외교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미 정부의 기밀문서가 필요하다는 5·18 관련 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작년 11월 미 국무부에 자료를 요청했고, 이 자료는 15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공개됐다. 클라이스틴 대사가 본국에 보고한 1979

년 12월 14일 면담 내용에 따르면 클라이스틴 대사는 한국군의 분열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질 위험 등에 대해 경고했다. 이에 전 사령관은 자신의 행동이 쿠데타나 혁명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암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려는 노력이며, 개인적 야심이 없고 최규하 대통령의 자유화 정책을 개인적으로 지지한다고 해명했다. 클라이스틴 대사는 전 사령관이 12·12 사태를 사전에 계획했다는 사실을 숨기려 했으며, 이 사태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

위험이 커진 것에 대해 매우 방어적으로 대응했다고 본국에 보고했다. 또 "전두환은 현재 상황이 표면적으로는 안정됐지만, 군부 내 다수의 정세화 지지자가 향후 몇 주 동안 상황을 바로잡으려 행동할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연히 전두환과 동료들은 (반대 세력의) 군사적 반격을 저지하는 데 우리의 도움을 받고 싶어한다"며 "우리가 향후 몇 주, 몇 달 간 매우 곤란한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적었다. 클라이스틴 대사는 면담 전날 국무부에 보낸 전문에서 12·12 사태를 '젊은 투르크' 장교들의 치밀한 계획에 따른 사실상의 쿠데타로 규정했다. /연합뉴스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알고계시나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